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정위원회 여성차별연구팀

110-470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808호
전화 02-3675-9935 전송 02-3675-9934

수 신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팀

발 신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정위원회 여성차별연구팀 (담당 : 조 옥)
제 목 : '그것이 알고싶다 -외면당한 교통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사과·정정보도 요구
날 짜 : 2003. 11. 1 (총 4 매)

1. 안녕하세요? 우리사회 정의실현을 위한 방송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다름이 아니라 장애여성 인권활동가들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정위원회 여성차별연구팀에서는 지난 10월 18일에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 외면당한 교통 장애여성 성폭력'을 보고 다음과 같이 귀사에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하오니 이를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그것이 알고싶다 - 외면당한 교통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사과 및 정정보도 요구서

지난 2003년 10월 1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외면 당한 교통, 장애여성 성폭력' 이 방영되었다. SBS측은 제작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급증하는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취재를 통해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애여성의 성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여성의 성폭력 문제를 다루어 사회적 관심을 환기 시켰다는 점에서 제작의도와 취재활동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영된 방송내용은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바, 장애여성인권활동가들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정위원회 여성차별연구팀(이하 '장추련 여성팀')에서는 의견을 모아 SBS에 전달하며, 이에 따른 방송사 측의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바이다.

장추련 여성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너무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폭로에만 급급했다.

성폭력문제를 다룰 때에는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워야 한다. 성은 매우 민감한 영역으로 그것이 공적으로 드러날 경우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흐를 수 있다. 방영된 방송을 보면, 처음부터 산부인과에서 낙태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으며 극단적인 사건의 예만을 나열했고, 기자의 질문내용도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게 됐어요. 몇 번이나 그랬느냐?' 식의 질문들과 가해자도 아닌 피해자가 피해현장을 직접 가서 피해상황을 진술하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노골적인 표현과 영상이 많았다.

2. 정신지체장애여성의 성폭력이 모든 장애여성의 성폭력으로 일반화되었다.

방송에 나온 사례를 보면 지적능력이 낮은 정신지체장애여성 성폭력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진행자의 이야기들 중에는 정신지체 장애여성과 장애여성을 혼용하면서 사용하는 등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화시킨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진행자의 멘트중에 '...정신지체 장애여성은 아동성폭력과 똑같이 ... 아동과 마찬가지로 장애여성들은 ...' 이라고 이야기하며, 지적능력이 낮은 장애여성의 성폭력에 대한 대처에 이어 장애여성이라는 일반화된 집단으로 표현됨으로써 왜곡될 소지가 농후하게 나타났다.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여성의 장애유형별 출현률을 보면 지체장애여성은 0.86%, 뇌병변장애여성 0.44%, 정신지체장애여성 0.22% 이고,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의뢰된 피해장애유형을 보면 정신지체가 55.1% 인 점을 고려한다면, 좀 더 분리된 접근이 필요하다. 모든 장애여성이 지적능력이 낮은 것처럼 일반화되어 묘사된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3. 성폭력 문제의 원인을 장애여성 개인, 특히 정신지체여성의 지적능력에 두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였다.

정신지체장애여성의 성폭력 문제를 다루면서, 방송 여러 군데에서 지적능력을 부각하고, 가족관계와 집안환경을 보여주면서, 무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성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접근을 수시로 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의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지적능력과 가족, 집안환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나, 성폭력은 엄연히 강자가 약자에게 취하는 폭력의 문제이지, 개인의 무지가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비장애 여성에게 나타나는 성폭력의 문제에서는 지적능력을 이야기하지 않

는다. 또한 장애여성들 중에서도 유독 정신지체장애여성에게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사회적 원인,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와 성폭력은 하나의 권력의 산물임을 드러내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했다. 표피적으로 드러난 사건만을 일차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성폭력 뒤에 가려진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4. 임중하게 처벌받은 사례나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정보는 없고, 사건 나열에만 그친 대안 없는 내용이었다.

방송에 반영된 사례들을 보면 발생한 사건의 구체적 과정과 수사의뢰과정만이 나올 뿐, 사건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장애여성의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하는지에 대한 노력은 매우 동정적이고, 감정적으로만 나타났다. 진행자는 마지막 멘트에서 '.....사회전체가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에서 웃는 장애여성들의 모습은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에 대해서 철저한 사회적 처벌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의 객관적 책임을 묻기보다 동정을 자아내게 하고, 감정적으로 측은하게 다가가게 할뿐이다.

극단적인 사례와 개인적이 원인에 의하여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접근하였을 뿐, 또다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의 연락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성폭력의 대상이 된 2002년 2700여건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었다.

5. 생리에 대한 취재 부분에서 장애여성 당사자의견이 배제되었고, 장애여성의 성은 불필요하고 두려운 것처럼 묘사되어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성인식만 강조되었다.

정신지체 장애여성에게 생리가 기쁜 존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예비적 폭력의 대상으로 묘사되어진 부분은 그 가족, 특히 어머니의 의견만이 표현되었을 뿐, 실제로 장애여성 당사자의 생각은 드러나지 않았다. 물론 생리를 하게되면 정신지체장애여성의 가족들은 불안해지며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이 걱정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신지체장애여성인 경우도 충분히 자신의 사고를 표현할 수 있음에도, 그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고, 다른 유형의 장애여성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모든 정신지체 장애여성의 부모생각이 장애여성 당사자의 생각인 것처럼 왜곡되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여성의 생리는 불편하고 두려운 것처럼 각인 되어 부정적인 성인식만 강조되었으며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권리는 표현되지 못했다.

6. 성폭력의 피해자를 인터뷰하면서 성인지적 관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성폭력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쉽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런데 정신지체 장애여성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하는 제작진들은 모두 남성들이었다. 또한 가해자도 아닌 피해자를 피해현장에 직접 데리고 가서 사건정황을 구체적으로 묻는 등, 정신지체장애여성을 여성으로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정신지체장애여성의 지적능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받아쓰기를 시도함으로써 개인적 장애에만 초점이 맞춰서,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했다.

장추련 여성팀은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SBS가 성의 있는 태도로 사과하고 정정 보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장추련 여성팀은 SBS측에 장애여성의 문제와 같이 우리사회의 약자인 소수자 문제를 다룰 때는 왜곡될 소지가 많고, 한번 방송되면 사회적 파장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방송되기 전에 관련단체, 당사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듣고 이를 반영하는 방송풍토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003년 11월 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정위원회 여성차별연구팀